

은행 부실채권 비상...공적자금 투입되나

2% 넘어 6년래 최고...연말 앞두고 처리 비상 부실 부동산 PF대출 사업장 적극 매각 방침

부실채권 비율이 2%를 넘어 6년래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시중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부실채권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부실채권에 대해 연내에 매각과 상각을 통해 정리하는 한편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장도 적극 매각기로 했다. 특히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PF 등 부실채권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 시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권, 부실 부동산 PF대출 골

머리 = 대책회의 시중은행들은 9일째 모여 부실 부동산 PF대출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해 이달 말까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PF는 대주단 공동으로 대출이 이뤄진 만큼 원활한 부실채 정리를 위해 전체 은행들이 모여 방안을 찾자는 취지에서다. 예컨대 부동산 PF 대출 사업장 한 곳에 대해 A은행은 정상 지원을 원하고 B은행은 매각을 원할 경우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도 은행들에 부동산 PF 부실대출에 대해 별도의 정리계획을 마련해 연내에 시행에 착수하라고 주

문했다. 은행들은 일단 부실한 부동산 PF대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농협은 부동산 PF 사업장별로 선별 매각에 착수했다. 농협은 분양 가능성이 낮거나, 준공은 됐지만 분양이 지지부진한 사업장 중심으로 매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사업장별로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정상화가 어려운 부동산 PF 사업장은 공매를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최근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마쳤으며 집중관리가 필요한 PF 여신은 본부에서 집중관리토록 했다.

◇은행 부동산 PF 등 부실채 처리에 공적자금 투입하나 = 금융원은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할 때 은행 자체적으로 부실채 정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관리상승 등으로 건

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원은 은행별로 연말까지 부실채권 감축 및 정리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권 내부에서도 부실채권 비율이 1.5%를 웃돌면 적신호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9월 말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32%로 2004년 3월 말(2.5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부실채 정리기관인 캠코는 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을 포함한 부실채권에 대한 세부 점검에 착수했다.

캠코 관계자는 “은행들이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가 자체 정리가 가능한 수준인지 세밀하게 따져보고 있다”며 “은행권 자체 정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필요하다면 당국과 협의해 부실채 매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상에 차 없는 공원형...사생활 보호 만족

■ 요즘 뜨는 브랜드 '첨단 자이 1단지' 가보니

GS건설이 지난 2002년 론칭한 아파트 브랜드 '자이'가 명품 주거공간을 표방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광주시 북구 신용동에 위치한 '첨단 자이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110㎡(33평)형 118가구, 115㎡(34평)형 296가구, 165㎡(49평)형 120가구, 193㎡(58평)형 60가구 등 총 10개 동 594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분양률이 80%에 달하는 등 입주가 한창이다.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경 디자인이 독특하다. 동간 거리를 넓혀 단지내에 실개천을 만들고 인공폭포를 재현하는 등 단지 내 공원이 눈길을 끈다. 또 주민 편의시설인 '자이안센

터'도 첨단자이가 자랑하는 시설이다. 피트니스센터와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어린이 놀이방, 멀티룸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 있어 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다.

첨단자이는 '자이서비스센터'와 '통합관계센터'를 운영해 사후관리와 철저한 보안시스템으로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지하주차장 벽을 뚫어 주차장 안에서도 단지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단지 내 CCTV 170여개를 설치하고 적외선 감지기과 주차장 비상벨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해 입주민들의 안전과 안락한 사생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

현재 GS건설은 '첨단자이 1단지' 잔여물량을 17~23%까지 가격 할인 분양하고 있다.

모든 평형에서 저층인 1~2층은 분양가의 23%, 3~4층은 22%, 5~9층은 19% 할인한다. 또 110㎡형과 115㎡형은 10층부터 최상층까지 17%를, 165㎡형과 193㎡형은 10~14층은 18% 최상층은 17%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10㎡(33평)형의 경우 안방, 불박이장이나 거실 장식장 등을 별도로 시공해 혜택을 더욱 늘렸다.

GS건설 분양팀 관계자는 “빛고을로 연장, 북광주IC, 첨단단지 2단계 조성 등 인근의 호재가 겹쳐 개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분양문의 062-368-2020. /사진=최현배기자 choi@

은행들 '새희망홀씨대출' 8일 출시

광주 등 은행들이 8일부터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출시한다.

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외환,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등의 은행들과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는 8일 일제히 '새희망홀씨대출'을 출시해 5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새희망홀씨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000

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된다.

다만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3개월 이상 연체 기록이나 조세 및 과태료 체납 등의 공공정보 등재된 사람, 해외채류자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출 한도는 2천만원 이내, 대출금리는 10월 기준으로 11~1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고교생 금융 이해도 38점...경제교육 절실

국내 고교생의 금융에 대한 이해도는 38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가정환경이 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을 형성하는데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개인 간 경제적 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천규승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은 4일 서울교대에서 한국경제학회와 경제교육학회, KDI가 공동 주최한 '학교 경제교육의 실태와 향

후 과제' 세미나 발표자료에서 “금융 이해력 모의테스트 결과, 고교생의 금융이해력이 100점 만점에 37.6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천 위원은 이어 “고교생은 수입과 지출관리,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 생애를 고려한 재무관리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 위험관리, 보험, 금융상품 특징 등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며 “저축과 투자에 관심이 높았지만 이해력은 가장 낮았고, 위험관리와 부채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이해력도 낮은 수준이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